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문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에서 조사대상자 2,378명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2,090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첫째, 청소년의 건강수준, 교육수준(부)·(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 건강수준, 교육수준(부)·(모), 형제자매 수에 따라 또래애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수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동체 의식교육 강화, 또래애착 함양을 위한 전략, 또래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주요어 청소년, 공동체 의식, 또래애착, 다문화 수용성, 매개효과

1. 문제제기

2007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외국인과의 혼인비율이 전체 혼인 비중의 10%를 넘어서게 되면서 한국은 단일민족국가에서

* 대경대, 사회복지과, leo-k@hanmail.net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오진숙, 2009). 법무부(2015)¹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는 약 178만 여 명을 넘었으며, 이는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약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자 등으로 외국인이 매우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중의 증가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교류는 다문화의 속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분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이 다른 민족과 인종,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개인, 집단, 국가에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학교 생활에서 피부색과 한국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이창호 외, 2007; 김이선 외, 2007). 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요구되는 한국 문화 적응에 대한 동화주의적 관점은 여전히 문화적 소수자·약자에 대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은진·이교일, 2014). 이주노동자의 노동 지위의 불안정과 동남아국가에 대한 문화적 우월 의식 등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 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갑성(2008)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구조일수록 더 많은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은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인지적 요인과 타문화권의 사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공존가능성을 의미한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 이해,

1 관련 자료는 법무부에서 2015년 2월에 발행한 통계월보의 “체류외국인”자료를 참조하였다.

태도, 실천적 행동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된 대상으로 노인보다는 성인, 성인보다는 청소년 시기부터 교육되어야 한다. 청소년²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2009)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06년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2,069명 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182명 2008년에는 4,307명, 2009년에는 5,729명으로 증가하였다. 자세한 학생 현황을 보면 2009년 국제 결혼가정의 자녀수는 초중고 5,346명, 외국인가정의 자녀수는 383명이며, 그중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4,518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는 피아제(1965)의 인지이론에도 적용된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는 인지적 능력과 사고의 틀이 결합하는 시기임으로 이 시기에 적절한 인지적 자극은 다문화에 대한 사고의 틀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수경·전선미(2014)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낮을수록 다문화 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거나 또래관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다문화 수용성이 높으면 또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장차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을 때 사회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의 공존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서로 다른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보거나(윤인진·송영호, 2011),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김이선 외, 2007)로 연구하였다. 박

2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인 9세 이상 24이하로 한다.

영주·이주은(2013)의 연구와 이자형·김경근(2014)의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매개변수 없이 인과관계만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식과 또래애착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공동체 의식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McMillan & Chavis(1986)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욕구가 공동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혜영(1993)은 공동체 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 성원이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획득되고 학습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박재숙(2010)은 심리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조직, 사회의 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상호헌신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통해 살펴볼 때, 공동체 의식은 지역성과 공유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McMillan & Chavis(1986)가 정의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소속감,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집단에 중요하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서로에 대한

헌신을 통해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으로 정의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공동체 의식은 중요한 변수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이기주의, 지역갈등, 연고주의와 같은 비민주적인 의식은 물질주의와 혈연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배타적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거나 한쪽으로 편견을 가진 사고가 만연하게 되었다(강가영·장유미, 2013). 이러한 사회적 병폐는 청소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이기주의와 혈연이기주의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이동원·주동범, 2000). 또한, 청소년의 편향된 사고의 발달은 왕따·학교폭력·성폭력 등 다양한 학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국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과거와 다르게 세계화·국제화의 중심 위치에 있으며, 이것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국가와 인종, 문화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따라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3D 업종과 제조업에 대한 내국의 기피로 인해 한국 사회는 불가피하게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으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이 최근 3년간 2만 5천 건에서 3만 건으로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14).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는 한국인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향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은 단군신화, 한민족, 단일민족의 이념에 따른 민족정체성과 단일민족주의가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민족정체성과 단일민족주의는 다문화 수용성을 낮추는 주요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김혜숙 외, 2011; 박정서, 2012; 조동기, 2010). 즉, 한국 내 강한 민족정체성과 단일민족주의는 자칫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부모·친구·지역사회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 역시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이자형·김경근, 2013). 공동체 의식은 지리적 공통성을 뛰어넘어 지역사회 내 함께 생활하는 이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

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 공동체 의식과 또래애착

애착이론은 부모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구조를 제공하는데, 애착이라는 용어는 Bowlby(1958)가 유아와 엄마와의 유대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는 애착을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유지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시키려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김지연, 1995 재인용). 청소년기 중에서 학령기 초기에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또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며, 이 시기에 애착행동은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에게로 확대된다. 그리고 학령기 후기로 갈수록 또래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가 증가하고, 또래애착은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Bryant, 1982).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또래애착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또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행복수준이 높고,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 & Huebner, 2008; 김아연, 2011 재인용).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이란 애착 행동이 친구들이나 동료 등 또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의 또래와의 관계는 사회성 발달이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학교나 밖에서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애착대상으로서 부모보다 또래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다(주은지, 2010; Nelis & Rae, 2009). 이 시기에 형성되는 또래 관계의 질은 각 개인의 성격형성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성인기의 대인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교환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이를 자기이해로까지 확장하여 자신을 새롭게 지각 할 수 있게 된다(Youniss, 1980). 청소년기는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아동기보다 또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로서, 친구관계의 중요도가 가족보다 더 중요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또래 간에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로움을 경험하기 쉽다. 이와 반대로 또래와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또래의 지지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불안과 위축, 미성숙한 행동과 같은 부적응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안진·한미현, 1996).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또래 집단과도 잘 지내고, 다른 문화에도 수용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또래에 작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동체 의식, 또래애착과 다문화 수용성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보다는 또래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애착형성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게 된다. 사회적 기술은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과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또래애착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고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이자형·김경근(2014)의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공동체 의식과 또래애착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이 또래애착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들이 개별적인 변수로 미치는 영향에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거주하며 합의된 가치와 의식을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 향상성이 높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애착형성은 다양한 인종, 문화, 민족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수용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래애착이 다문화 수용성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체 의식이 또래 애착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공동체 의식은 또래애착에, 또래 애착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또래애착,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인과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하여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또래애착이 이들 간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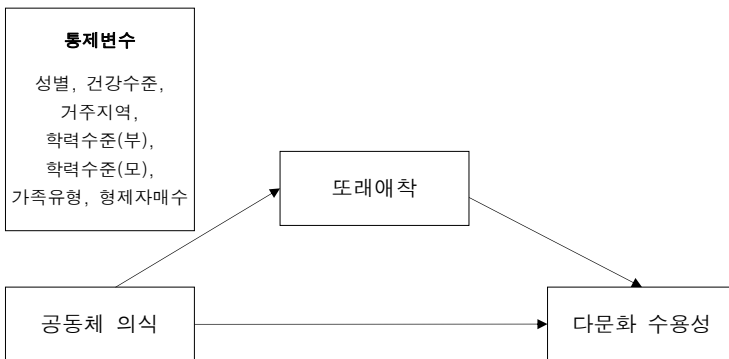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1, 초4,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기 전반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주목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2010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7년간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패널조사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 설문조사에 다문화 수용성의 문항을 포함하는 초등학교 4학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2,378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4차년도 조사 응답자 2,378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2,090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공동체 의식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한 4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내용은 '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②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④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를 포함하여,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가 1점, '그런 편이다'가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①, ②, ③, ④번 항목은 부정(-) 항목으로 역점제를 하였으며, 4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의 Cronbach's α 값은 .802이었다.

(2)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한 5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내용은 '① 나와 문화

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②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③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④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다. 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를 포함하여,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가 1 점, ‘그런 편이다’가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4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①, ②, ③, ④, ⑤번 항목은 부적(-) 항목으로 역채점을 하였으며, 5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 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의 Cronbach's α 값은 .846이었다.

(3) 매개변수: 또래애착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한 9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내용은 ‘①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②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③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④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⑥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⑦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⑧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⑨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를 포함하여,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가 1점, ‘그런 편이다’가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①, ②, ③, ④, ⑤, ⑥번 항목은 부적(-) 항목으로 역채점을 하였으며, 9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의 Cronbach's α 값은 .817이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로서 성별은 회귀분석을 위하여 ‘0=여성, 1=

남성'으로 더미변수하여 처리하였다. 건강수준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 1부터 4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투입하였다. 거주지역은 회귀분석을 위하여 '0=농·어촌지역, 1=도시지역'으로 더미변수하여 처리하였다. 학력수준(부, 모)은 회귀분석을 위하여 각각 '고졸이하=0, 전문대졸이상=1'으로 더미변수하였으며, 가족구성은 회귀분석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0, 양부모가족=1'으로 더미변수하였다. 형제자매수는 형제자매수에 따라 '0=0명, 1=1명, 2=2명, 3=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했으며, 회귀분석에서는 형제자매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은 먼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및 그들 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Baron & Kenny(1986)의 방법을 적용했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검증은 총 3단계로써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3단계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후 매개변수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MacKinnon et a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test 검정값을 제시했다. Sobel 검정에 의한 Z값은 $Z > 1.96$ 또는 $Z < -1.96$ 을 만족하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이 1,097명(52.5%)로서 여학생 993명(47.5%)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건강수준은 건강한 편이다가 1,303명(62.3%), 매우 건강하다 672명(32.2%),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10명(5.3%),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5명(0.2%)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도시지역이 1,793명(85.8%)로서 농어촌 지역 297명(14.2%)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이상인 1,793명(85.8%)로서 고등학교 졸업이하 773명(37.0%)보다 높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학생	993	47.5
	남학생	1,097	52.5
건강수준	매우 건강하다	672	32.2
	건강한 편이다	1,303	62.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10	5.3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5	0.2
거주지역	농어촌지역	297	14.2
	도시지역	1,793	85.8
교육수준(부)	고등학교 졸업이하	773	37.0
	전문대학 졸업이상	1,317	63.0
교육수준(모)	고등학교 졸업이하	937	44.8
	전문대학 졸업이상	1,153	55.2
가족유형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350	16.7
	양부모가족	1,740	83.3
형제자매수	0명	294	14.1
	1명	1,350	64.6
	2명	402	19.2
	3명 이상	44	2.1

게 분포되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이상이 1,153명(55.2%)로서 고등학교 졸업이하 937명(44.8%)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가족유형은 양부모가족이 1,740명(83.3%)로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350명(16.7%)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형제자매수는 1명이 1,350명(64.6%), 2명이 402명(19.2%), 0명이 294명(14.1%), 3명 이상이 44명(2.1%)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과 독립변수로 설정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매개변수로 설정한 또래애착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공동체 의식, 또래애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은 평균 2.960(SD=0.595), 최소값 1, 최대값 4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은 평균 3.002(SD=0.575), 최소값 1, 최대값 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은 평균 3.098(SD=0.471), 최소값 1, 최대값 4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M	SD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	2.960	0.595	1	4
독립변수	공동체 의식	3.002	0.575	1	4
매개변수	또래애착	3.098	0.471	1	4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 의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 의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 또는 F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건강수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F=18.458, p<.001$). 청소년의 건강수준의 하위 변인들에 따른 공동체 의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과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학 졸업이상 집단($M=3.039, SD=0.566$)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M=2.939, SD=0.586$)보다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853, p<.001$).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이상 집단($M=3.034, SD=0.564$)이 고등학교 졸업이하 집단($M=2.963, SD=0.587$)보다 공동체 의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공동체 의식에 대한 차이 분석

변인	구분	N	M(SD)	t/F
성별	여학생	993	2.989(0.538)	-1.015
	남학생	1,097	3.014(0.607)	
건강수준	매우 건강하다(a)	672	3.130(0.614)	18.458*** a>b, a>c
	건강한 편이다(b)	1,303	2.948(0.537)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c)	110	2.852(0.625)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d)	5	3.350(0.602)	
거주지역	농어촌지역	297	3.014(0.558)	0.389
	도시지역	1,793	3.000(0.578)	
교육수준(부)	고등학교 졸업이하	773	2.939(0.586)	-3.853***
	전문대학 졸업이상	1,317	3.039(0.566)	
교육수준(모)	고등학교 졸업이하	937	2.963(0.587)	-2.824**
	전문대학 졸업이상	1,153	3.034(0.564)	
가족유형	한부모가족·조손가족	350	2.979(0.572)	-0.819
	양부모가족	1,740	3.007(0.576)	
형제자매수	0명	294	3.022(0.557)	0.166
	1명	1,350	3.000(0.579)	
	2명	402	2.993(0.575)	
	3명 이상	44	3.017(0.587)	

* $p<.05$, ** $p<.01$, *** $p<.001$

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24, p<.01$). 한편, 청소년의 성별, 거주지역, 가족유형,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동체 의식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 또는 F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건강수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3.018, p<.001$). 청소년의 건강수준의 하위 변인들에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차이 분석

변인	구분	N	M(SD)	t/F
성별	여학생	993	2.956(0.590)	-0.323
	남학생	1,097	2.964(0.600)	
건강수준	매우 건강하다(a)	672	3.072(0.623)	13.018*** a>b, a>c
	건강한 편이다(b)	1,303	2.907(0.561)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c)	110	2.886(0.710)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d)	5	3.360(0.537)	
거주지역	농어촌지역	297	2.907(0.564)	-1.653
	도시지역	1,793	2.969(0.600)	
교육수준(부)	고등학교 졸업이하	773	2.935(0.605)	-1.448
	전문대학 졸업이상	1,317	2.974(0.589)	
교육수준(모)	고등학교 졸업이하	937	2.948(0.609)	-0.830
	전문대학 졸업이상	1,153	2.970(0.584)	
가족유형	한부모가족·조손가족	350	2.965(0.560)	0.180
	양부모가족	1,740	2.959(0.602)	
형제자매수	0명	294	2.976(0.577)	1.137
	1명	1,350	2.945(0.608)	
	2명	402	3.002(0.563)	
	3명 이상	44	2.909(0.583)	

* $p<.05$, ** $p<.01$, *** $p<.001$

따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부), 교육수준(모), 가족유형, 형제자매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또래애착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또래애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 또는 F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여학생 집단(M=3.126, SD=0.477)이 남학생 집단(M=3.071, SD=0.465)보다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663, p<.01$). 청소년의 건강수준에 따른 또래애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7.883, p<.001$). 청소년의 건강수준의 하위 변인들에 따른 또래애착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또래애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학 졸업이상 집단(M=3.126, SD=0.469)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M=3.048, SD=0.472)보다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655, p<.001$).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이상 집단(M=3.124, SD=0.471)이 고등학교 졸업이하 집단(M=3.065, SD=0.470)보다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24, p<.01$). 청소년의 형제자매수에 따른 또래애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441, p<.05$). 청소년의 형제자매수에 따른 하위 변인들에 따른 또래애착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하위 집단간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또래애착에 대한 차이 분석

변인	구분	N	M(SD)	t/F
성별	여학생	993	3.126(0.477)	2.663**
	남학생	1,097	3.071(0.465)	2.663**
건강수준	매우 건강하다(a)	672	3.227(0.490)	27.883*** a>b, a>c
	건강한 편이다(b)	1,303	3.045(0.446)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c)	110	2.936(0.482)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d)	5	2.933(0.670)	
거주지역	농어촌지역	297	3.067(0.470)	-1.190
	도시지역	1,793	3.103(0.472)	-1.190
교육수준(부)	고등학교 졸업이하	773	3.048(0.472)	-3.655***
	전문대학 졸업이상	1,317	3.126(0.469)	-3.655***
교육수준(모)	고등학교 졸업이하	937	3.065(0.470)	-2.837**
	전문대학 졸업이상	1,153	3.124(0.471)	-2.837**
가족유형	한부모가족·조손가족	350	3.090(0.461)	-0.347
	양부모가족	1,740	3.099(0.473)	-0.347
형제자매수	0명	294	3.114(0.465)	3.441*
	1명	1,350	3.111(0.476)	
	2명	402	3.060(0.454)	
	3명 이상	44	2.919(0.492)	

* p<.05, ** p<.01, *** p<.001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거주지역, 가족유형에 따른 또래애착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투입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했으며,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교육수준(모)와 교육수준(부)가 .591(p<.001)로써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이 .501(p<.001), 또래애착과 공동체 의식이 .312(p<.001), 형제자매수와 가족

유형이 .224(p<.001), 또래애착과 다문화 수용성이 .222(p<.001), 또래애착과 건강수준이 -.193(p<.001), 공동체 의식과 건강수준이 -.147(p<.001), 교육수준(부)와 거주지역이 .137(p<.001), 가족유형과 교육수준(부)가 -.131(p<.001), 형제자매수와 교육수준(모)가 -.124(p<.001), 가족유형과 교육수준(모)가 -.118(p<.001), 다문화 수용성과 건강수준이 -.114(p<.001), 형제자매수와 교육수준(부)가 -.098(p<.001), 공동체 의식과 교육수준(부)가 .084(p<.001), 또래애착과 교육수준(부)가 .080(p<.001), 교육수준(모)와 거주지역이 .066(p<.01), 형제자매수와 거주지역·공동체 의식과 교육수준(모)·또래애착과 교육수준(모)는 -.062(p<.01), 교육수준(부)와 성별이 -.060(p<.01), 또래애착과 성별이 -.058(p<.01), 또래애착과 형제자매수는 .062(p<.01), 형제자매수와 성별은 -.049(p<.05), 교육수준(모)와 성별이 -.045(p<.05), 가족유형과 건강수준은 -.044(p<.05), 건강수준과 성별은 -.077(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별과 거주지역, 성별과 가족유형, 성별과 다문화 수용성, 성별과 공동체 의식, 건강수준과 거주지역, 건강수준과 교육수준(부), 건강수준과 교육수준(모), 건강수준과 형제자매수, 거주지역과 가족유형, 거주지역과 다문화 수용성, 거주지역과 공동체 의식, 거주지역과 또래애착, 교육수준(부)와 다문화 수용성, 교육수준(모)

표 6.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성별(1)	1									
건강수준(2)	-0.077***	1								
거주지역(3)	-.017	-.013	1							
교육수준(부)(4)	-.060**	.017	.137***	1						
교육수준(모)(5)	-.045*	-.006	.066**	.591***	1					
가족유형(6)	.007	-.044*	-.021	-.131***	-.118***	1				
형제자매수(7)	-.049*	.017	-.062**	-.098***	-.124***	.224***	1			
다문화 수용성(8)	.007	-.114***	.036	.032	.018	-.004	.010	1		
공동체 의식(9)	.022	-.147***	-.009	.084***	.062**	.018	-.011	.501***	1	
또래애착(10)	-.058**	-.193***	.026	.080***	.062**	.008	-.056**	.222***	.312***	1

* p<.05, ** p<.01, *** p<.001

와 다문화 수용성, 가족유형과 다문화 수용성, 형제자매수와 다문화 수용성, 가족유형과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성과 공동체 의식, 가족유형과 또래애착은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또래애착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에 대해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매개회귀분석(Mediating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8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는 .632~.987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가 1.013~1.581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Durbin-Watson을 살펴본 결과 1.956~1.980으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첫 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이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12.8%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은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beta=.286, p<.001$),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했다. 통제변수 가운데에서는 성

표 7. 1단계 분석 결과

변수 (종속변수: 또래애착)		비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상수)		2.636	.075		35.148***		
통제변수	성별 ¹	-.072	.019	-.076	-3.692***	.987	1.013
	건강수준	-.131	.017	-.156	-7.511***	.970	1.031
	거주지역 ²	.021	.028	.016	.760	.977	1.023
	교육수준(부) ³	.042	.025	.043	1.692	.633	1.579
	교육수준(모) ⁴	.008	.024	.009	.341	.645	1.550
	가족유형 ⁵	.019	.027	.015	.693	.934	1.071
형제자매수	-.038	.016	-.051	-2.434*	.934	1.071	
독립변수	공동체 의식	.234	.017	.286	13.782***	.970	1.031
R ²		.131		adj. R ²		.128	
F		39.270***		Durbin-Waston		1.956	

※ 1성별: 0=여학생, 1=남학생, 2거주지역: 0=농어촌지역, 1=도시지역, 3교육수준(부): 0=고등학교 졸업이하, 1=전문대학 졸업이상, 4교육수준(모): 0=고등학교 졸업이하, 1=전문대학 졸업이상, 5가족 유형: 0=한부모가족·조손가족, 1=양부모가족

* p<.05, ** p<.01, *** p<.001

별($t=-3.692$, $p<.001$)과 건강수준($t=-7.511$, $p<.001$)이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거주지역, 교육수준(부), 교육수준(모), 가족유형, 형제자매수는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두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이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25.3%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독립변수인 공

표 8. 2단계 분석 결과

변수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		비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B	SE	β	t		
(상수)		1.457	.088		16.625***		
통제변수	성별 ¹	-.008	.023	-.006	-.336	.987	1.013
	건강수준	-.045	.020	-.043	-2.218	.970	1.031
	거주지역 ²	.073	.033	.043	2.229*	.977	1.023
	교육수준(부) ³	-.013	.029	-.011	-.452	.633	1.579
	교육수준(모) ⁴	-.011	.028	-.009	-.401	.645	1.550
	가족유형 ⁵	-.033	.031	-.021	-1.073	.934	1.071
	형제자매수	.019	.018	.021	1.060	.934	1.071
독립변수	공동체 의식	.515	.020	.497	25.897***	.970	1.031
R ²		.255		adj. R ²		.253	
F		23.620***		Durbin-Waston		1.980	

※ 1성별: 0=여학생, 1=남학생, 2거주지역: 0=농어촌지역, 1=도시지역, 3교육수준(부): 0=고등학교 졸업이하, 1=전문대학 졸업이상, 4교육수준(모): 0=고등학교 졸업이하, 1=전문대학 졸업이상, 5가족 유형: 0=한부모가족·조손가족, 1=양부모가족

* p<.05, ** p<.01, *** p<.001

동체 의식은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beta=.497, p<.001$),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했다. 통제변수 가운데에서는 거주지역($t=2.229, p<.05$)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성별, 건강수준, 교육수준(부), 교육수준(모), 가족유형, 형제자매수는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 검증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세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을 통제한 후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이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을 통제한 후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이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25.6%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은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beta=.069, p<.01$),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를 통제한 후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이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beta=.478, p$

표 9. 3단계 분석 결과

변수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		비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상수)		1.227	.110		11.121***		
통제변수	성별 ¹	-.001	.023	-.001	-.061	.980	1.020
	건강수준	-.034	.021	-.032	-1.640	.944	1.059
	거주지역 ²	.071	.033	.042	2.178*	.977	1.023
	교육수준(부) ³	-.017	.029	-.014	-.579	.632	1.581
	교육수준(모) ⁴	-.012	.028	-.010	-.427	.645	1.551
	가족유형 ⁵	-.035	.031	-.022	-1.127	.934	1.071
독립변수 매개변수	형제자매수	.023	.018	.024	1.243	.931	1.074
	공동체 의식	.494	.021	.478	23.867***	.888	1.126
	또래애착	.087	.026	.069	3.410**	.869	1.151
R ²		.260		adj. R ²		.256	
F		81.026***		Durbin-Watson		1.979	

※ 1성별: 0=여학생, 1=남학생, 2거주지역: 0=농어촌지역, 1=도시지역, 3교육수준(부): 0=고등학교 졸업이하, 1=전문대학 졸업이상, 4교육수준(모): 0=고등학교 졸업이하, 1=전문대학 졸업이상, 5가족 유형: 0=한부모가족·조손가족, 1=양부모가족

* p<.05, ** p<.01, *** p<.001

<.001) 이들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통제변수 가운데에서는 거주지역($t=2.178, p<.05$)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성별, 건강수준, 교육수준(부), 교육수준(모), 가족유형, 형제자매수는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Sobel 검증

청소년의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식하여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Sobel's Z값이 $-3.385(p<.01)$ 로 산출되었으므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10. 3단계 분석 결과

경로	Z	p
공동체 의식 → 또래애착 → 다문화 수용성	3.251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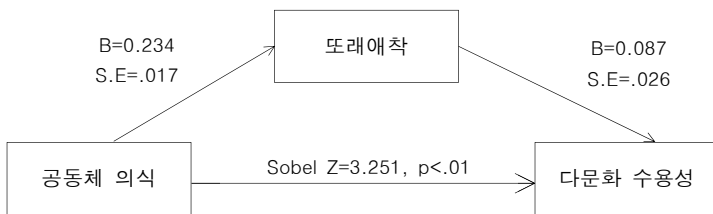


그림 2.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도식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에서 조사대상자 2,378명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2,090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공동체 의식, 또래애착, 다문화 수용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먼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청소년의 건강수준, 교육수준(부), 교육수준(모)이었다. 즉, 건강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래애착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청소년의 건강수준, 교육수준(부), 교육수준(모), 형제자매수이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애착이 높았으며, 청소년의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형제자매수는 적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건강수준이었다. 즉, 청소년의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매개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이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9.270,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3.620, p<.001$).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을 통제된 후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81.026, p<.001$).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단계의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이 $\beta=.478(p>.001)$ 으로써 2단계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의 $\beta=.497(p<.001)$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성립

되었다. 하지만, 3단계의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이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인 Sobel test 검정에 의한 Z값은 본 연구에서 3.251($p < .001$)으로 나타남으로써 $Z > 1.96$ 또는 $Z < -1.96$ 을 만족하므로 정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었다.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매개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낮을지라도 또래애착에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낮을지라도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매개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또래애착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의식교육 강화이다. 연구 결과처럼 공동체 의식이 높은 청소년이 다문화 수용성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부터 타문화,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과 인종, 언어 및 외모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없도록 의식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필수적인 교육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또래애착 함양이다. 또래 애착이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부족한 또래 애착을 위한 함양이 필요하다. 학교나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는 또래 애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문화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또래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청소년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또래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즉, 멘토의 역량을 가진 청소년과의 빈번한 접촉은 또래들의 사회적 기술의 향상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 자원 봉사센터, 학교, 상담기관,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대상이 전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일반화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나,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였다라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변화는 한 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 보다는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14.10.31 접수, 2014.12.15 수정, 2014.12.26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가영·장유미, 2012, 아동·청소년의 내·외적 환경요인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 연구, 제 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 경기도교육청, 2009, 학교 다문화교육의 정책방향과 실천사례, 2009 다문화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자료집.
- 김갑성, 2008,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18, 58-95.
- 김아연, 2011, 아동의 사교육 경험, 자아탄력성 및 부모·포레 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길위에 선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젠더리뷰, 5, 112-114.
- 김이선 외, 2007,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225.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석·양영미, 2014,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 김혜숙 외,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

- 축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박영주·이주은, 2013,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4, 285-310.
- 박정서, 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적태도 분석연구, 열린교육연구, 20(4), 89-113.
- 박재숙, 2010, 한국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법무부, 2015, 통계월보.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統一問題研究, 23(1), 143-192.
- 오진숙, 2009,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초등학교생의 인식에 관한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이동원·주동변, 2000,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3-114.
- 이수경·전선미, 2014,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 지역사회 친밀감, 포래 애착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103-121.
- 이은진·이교일, 2014,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4(1), 27-54.
- 이자형·김경근, 2013,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1), 53-77.
- 이자형·김경근, 2014, 한국 초등학교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학연구, 52(4), 55-81.
- 이창호 외, 2007,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60-62.
- 이혜영, 1993,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3(2), 113-134.
- 조동기, 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3(3), 53-73.
- 주은지, 201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 애착, 포래애착과 낭만 애착,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8(4), 141-171.
- 통계청, 2014, 인구동향조사: 다문화 유형별
- Baron, R.M. & Kenny, D.A., 1986, The modere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seration, Journal of personal-

- 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2), 413-425.
- David W. McMillan and David M.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14(1), 6-23.
- MacKinnon, D.P. et al.,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1), 83-104.
- Nelis, S. M., & Rae, G., 2009,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 443-447.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tudy of Youth's Community Awareness Impa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Mun-Soo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youth's community awareness affects the multicultural cultural acceptance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variables. To this end, this study applies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2,090 persons tha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from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The findings showed some interesting results. First, youth's community awareness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father, mother) and health status of youth. Second, youth's mediating effect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father, mother), health status of youth and sex. Third, cultural acceptance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health status of youth. Finally, peer attachment of mediation effect was observed relationship between youth's community awareness and multi cultural acceptance. Based on these findings, enhanced sense of community education for youth, strategies for fostering peer attachment, activation through peer mentoring program are suggested as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multi cultural acceptance of youth. Results of this study have the meanings as the basis for further research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young people.

Keywords Youth, Community Awareness, Peer Attachment, Multicultural Acceptance, Mediating Effect

* Daekyeng University, Professor, Social Welfare, leo-k@hanmail.net